

여성연합 창립 15주년 기념 & 여성연합 후원을 위한

나눔의 프락잔치



일 시 : 2002년 9월 6일(금) 6시 30분
장 소 : 웨라톤워커힐 제이드가든
주 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회
후 원 :  유현경씨

美 무디스 신용평가

A

국내유일의 A등급 시중은행

국민+주택은행의 성공적인 통합에 보내준 세계의 평가입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의 수준만큼 그 나라경제에 대한 신뢰가 올라갑니다. 엄격하기로 이름난 무디스의 신용평가에서 국내 시중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IMF이후 최초로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국민·주택은행간 성공적인 통합에 보내준 세계의 평가이자 우리경제의 청신호입니다.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은행으로서 한국경제의 승승장구를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KB 국민은행

무역의 바다, 그 바다 끝까지

무역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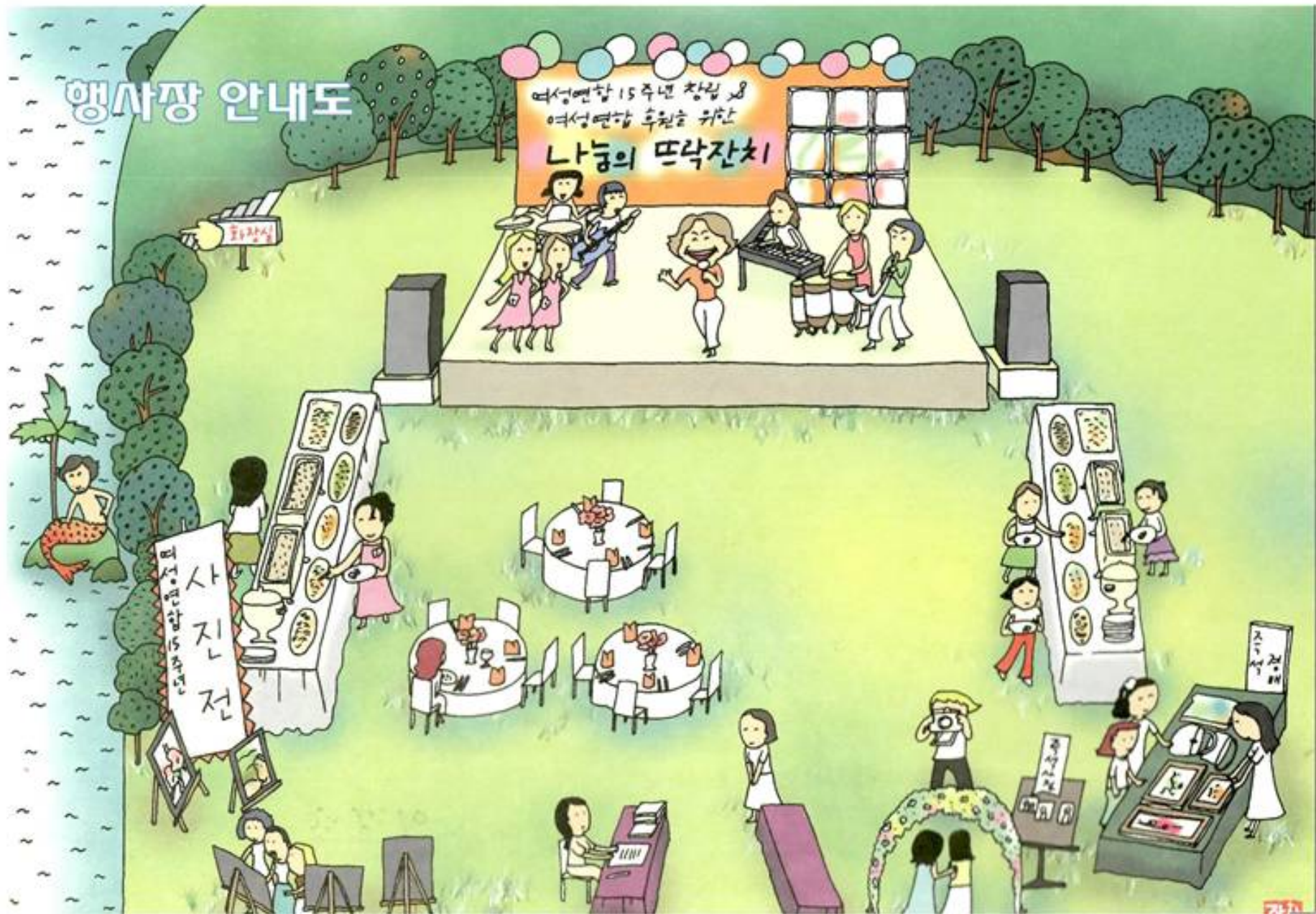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TEL : 02) 6000-0114

이경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행사장 안내도



프로그래ム

■ 무대 위에서 (사회: 개그맨 김미화, KBS 아나운서 김홍성)

- 개막 공연: 어린이 예술단 '아름나라'
- 초대 의인사: 이세종·패티김 후원회장
- 감사의 말씀: 이오경숙·이강실·정현백 여성연합 공동대표
- 내빈 소개
- 식사와영상쇼: 축하영상편지, 여성연합 15년사
- 축하 공연: 라틴재즈·살사 빅밴드 '코바나'
- 경품 잔치와 경매 결과 발표

■ 정원 입구에서

- 즉석 경매 '나의 진품 스토리'
- 사진으로 보는 '여성연합 15년사'
- 즉석 사진 '가든샷'

팸플렛 순서

행사장 안내도 / 4

초청의 말씀 / 6

감사의 인사 / 7

후원회원 명단 / 8

후원회소개 & 가입서 / 9~10

2002년 여성연합 주요활동 / 11

출연진 소개 / 12~13

즉석 경매 '나의 진품 스토리' 소개 / 14~15

사진으로 보는 '여성연합 15년사' / 16~20

조형의 말씀

이이효재 후원회장



"여성운동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볼 수 있는 자리, 건강한 사회·평등한 세상을 향한 꿈이 나 혼자만의 바람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기부는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나의 딸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더 많은 딸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하는 잔치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더욱 커지는 우리가 되는 오늘 이 자리, 마음껏 나누십시오. 마음껏 전하십시오. 10배, 100배가 되어 되돌아오는 모두의 기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중 후원회장

지난해 매월 정하신 금액을 꼬박꼬박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들과 목돈을 모아 평생후원금을 내주시는 주춧돌 위원까지 모든 분들의 정성으로 여성연합 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수익금은 고스란히 여성연합에 전달되어 작년과 올 상반기 활동의 기반이 되었지만, 여성운동의 자립까지가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과 후원회원께서 계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 한국 여성의 내일은 밝습니다. 밝은 내일을 위해 오늘 '나눔의 프락잔치'에 함께 해주신 기업과 기부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패티김 후원회장



"여성연합 후원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후원회장으로서 제 역할은 저를 알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여성연합을 알리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성연합의 활동을 도와달라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성연합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저 역시 올 가을, 세종문화회관에서 작년에 이은 '패티김 콘서트'로 여러분을 만나고, 공연의 수익금 일부도 여성연합에 기부하려 합니다. 자신의 재능과 시간의 일부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할수록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세상은 더욱 빨리 올 것입니다."

이오경숙 상임대표

"여성연합이 창립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5년간 우리 단체는 불모지에서 시작해 성차별없는 민주사회만들기 운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가부장제와 권위주의에 찌든 사회를 바꿔 나갔고, 성차별적인 법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대안적인 정책마련과 사회여론 조성, 대정부 압력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난 15년은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전국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과 뜻을 함께 하는 남성 동지들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와 의식을 바꾸어 평등의식이 정착하는 한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변함없는 애정과 정성을 보여주시는 후원회원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성연합 후원회'와 후원 기업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강실 공동대표



"성매매의 사슬에서 노예매춘, 감금매춘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21세기형 인신매매라 불리워지는 성매매 알선을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연합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 뜻에 함께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눔의 드림잔치'에 모아주신 정성과 뜻을 성매매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보태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정현백 공동대표

"올해의 8.15는 특별하였습니다. 분단의 반세기를 훨씬 넘기고서야 남과 북은 8·15를 함께 축하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때 남과 북의 여성들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여성 통일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제 다음달이면 금강산에서 '남북여성통일대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 역사적 현장을 만들어내는 곳에도 여성연합은 혼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운동을 하려면 '쓰레기부터 통일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여성이 없는 안된다는 그 말처럼, 사회변혁의 주체가 되는 '여성', '여성연합'을 지켜가겠습니다."



후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

- 후원회장 : 이미효재(여성연합 고문) 이세중(변호사) 패티김(가수)
- 운영위원 : 강금실(변호사) 강지현(검사) 강학중(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김익현(변호사) 김문옥(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김희선(국회의원) 문선경(여성연합 창업위원) 문애원(주)웹컴퓨터 사장) 박경희(KBS 아나운서실 부장) 박혜민(여성학자) 송두환(변호사) 신낙균(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숙희(우먼타임스 대표) 신혜수(한국여성혁신연합 상임대표) 이경배(한국기업매세나협회의 사무총장) 이경숙(여성연합 상임대표) 이미경(국회의원) 이영순(여성연합 지도위원) 이은미(여성학의원 회장) 이혜경(여성문화예술기획 대표) 임정희(여성신문사 부사장) 장하진(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정세균(국회의원) 정한백(여성연합 공동대표) 조연홍(한국농수산방송 부장) 조화순(목사) 지하은희(여성연합 지도위원) 채윤희(물넷시네마 대표) 최영희(국회의원) 한영희(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주춧돌위원 : 강남식 강명자 강문규 고은영 김근태 김명현 김민석 김방림 김부경 김산실 김애령 김영선 김중배 김학천 김홍신 김홍순 남은민 로려주희 문정주 박금자 박성현 서상섭 서영호 송영길 신계문 신기남 신수연 심재권 양삼승 오세훈 오재식 윤정로 윤정옥 윤정혜 윤후정 이부영 이상덕 이석태 이연숙 이우정 이윤영호 이재철 이재희 이찬진 이창복 임영숙 장 상 전현희 정근환 정병구 조재구 최 열 최미란 최은순
- 평등실천 남성100인 위원회 : 감지현 강학중 김병후 김상근 박연철 안동일 안병욱 안재규 유종원 이근호 이경배 이찬진 전종영 조재구 최병오
- 일반후원회원
 - 5천원 후원회원 : 강은숙 김정식 강진영 강찬식 강경화 갑난희 김명미 김명수 김문경 김성기 김숙자 김원식 김유자 김진경 김진희 김철현 김형수 김혜련 류종훈 류진숙 문종호 박구만 박영우 박현욱 변선희 변우현 변은성 선안정 송영모 송민경 안진희 양곡성당수녀원 양정인 양한태 오진환 우은정 원종희 유미선 유정지 유혜만 이석종 이연주 이재현 장윤경
 - 1만원 후원회원 : 강석재 강은숙 고은실 김경희 김계정 김달수 김민정 김석태 김선영 김성희 김수경 김영순 김영희 김은경 김은영 김은희 김윤태 김인수 김민숙 김재운 김철숙 김재우 김주숙 김주현 김중환 김지숙 김필복 김해운 김혜순 노용래 류창범 류현경 문관식 박종미 박선경 박선영 박윤희 박정희 박종필 박종화 박진경 박지영 박수연 방혜신 서주원 선 희 송경민 송상원 송승주 송영석 신경아 신영지 신미숙 신은주 신헌옥 안미란 안옥분 안정선 안혜경 양세진 연광호 오정진 오혜란 유 성 유미영 유송희 유영희 유정은 유현숙 유희정 윤미향 이강택 이경환 이광희 이금희 이미경 이미영 이만영 이선민 이수연 이숙경 이승재 이원기 이윤경 이윤형 이종우 이주은 이태경 이태훈 이흥구 이화진 임진이 임영호 임문봉 임은주 임윤빈 장영미 장유식 전호식 정순철 정영순 정은실 정재후 정진호 정진희 정현주 조경희 조아나 조영옥 조윤희 조재영 최금진 최상근 최석환 최성용 최영희 최은정 최윤희 최정희 피경원 하용자 한창화 함춘옥 허재성 황영문
 - 1만5천원 후원회원 : 김태선
 - 3만원 후원회원 : 김현미 민영은 최영숙 허 군
 - 5만원 후원회원 : 최병오 송송희
 - 10만원 후원회원 : 박연철 이윤영 전예리 전종영 기타 후원회원 : 김금려 대안교육센터 박미경 박용준 박정우 선정연 송미현 유송희 전서연 조경선 조기숙
-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 대책활동기금 기부 : 백지영(100만원)
- 특별 후원 (재능 기부)
 - 권혜효(행사 사회 지원)
 - 김재원(행사 사회 지원)
 - 박경옥(여성연합 후원회 홍보 브로슈어 제작 지원)
 - 박수부(여성연합 후원회 라디오광고 제작 지원)
 - 안혜경(행사 음악부분 지원)
 - 유애리(행사 사회 지원)
 - 윤창중('패티김 사랑의 콘서트' 기획·진행 지원)
 - 어원경(행사음악부분 지원)
 - 이혜란(행사 기획 연출 지원)
 - 장자현실(삽화제작 지원)
 - 전현희(레이저프린트 기증)
 - 최경기(행사 사회 지원)
 - 패티김(전국 8개 도시 순회 '패티김 사랑의 콘서트'로 기금조성 이벤트 제공)
 - 홍현숙(행사 미술부분 지원)
 - 김미화(행사 사회 지원)
 - 김홍성(행사 사회 지원)
 - 박경희(행사 사회 지원)
 - 변창립(행사 사회 지원)
 - 오한숙희(행사 사회 지원)
 - 유인경(홍보물 제작 지원)
 - 은백음원(행사 음악 등 시스템 지원)
 - 이정열(행사 음악부분 지원)
 - 장성하(홍보물 제작·사진촬영 지원)
 - 전선희(주요문서 번역 지원)
 - 정은아(행사 사회 지원)
 - 최정현(삽화제작 지원)
 - 허수경(행사 사회 지원)

후원회 참가 안내

◆ 참가 자격 : 여성·남성, 단체, 기업 모두 가능합니다.

◆ 후원회 참여방법

- 일반 후원회원 : 매월 5천원·1만원·2만원·기타 금액을
자동이체금으로 기부하는 회원
- 평생 후원회원 :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하는 회원
- 평등실천 남성 100인 위원회 : 매월 10만원 이상 혹은 일시불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남성 회원
- 나눔실천 경제인 위원회 : 연 500만원~1000만원을 기부하는 기업 회원

◆ 각종 혜택 : 여성연합은 지정기부단체로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드립니다.

- 하나, 개인 후원자께서는 기부하신 금액에 대해 연말 종합소득세 공제혜택을 드립니다.
- 두송, 기업 후원은 기부하신 금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세넷, 후원회 소식지 및 후원금에 대한 재정보고서를 보내 드립니다.
- 네넷, 여성운동의 생생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활동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 다섯, 후원회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및 한국여성대회의 초대권을 보내 드립니다.

◆ 참가 방법 : 오른쪽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후원·예금·이체금으로 보내주십시오

전화 : (02) 2275-7788 팩스 : (02) 2273-9539

이메일 : kwau@women21.or.kr

주소 : 서울시 중구 창충동1가 38-84 여성평화회의집 2층 (100-391)

참·가·신·형·서

이 름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자 택 주 소 :

전화번호 :

직 장 주 소 :

직 장 명 :

직 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휴 대 전 화 :

이 메 일 :

후원회원 종류

- ☐ 일반후원회원(□월 5천원/□월1만원 /□월2만원/□월 ____만원)
☐ 평생 후원회원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하는 회원)
☐ 평등실천 남성 100인 위원회 (□월 10만원 / □일시불 100만원)
☐ 나눔실천 경제인 위원회 (□연 500만원 / □ 연 1000만원 /□ 연 ____만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매월 약정하신 기부금을 자동이체로 후원하는 회원께서는 작성하여 보내주시십시오)

출금 은행 :

계좌 번호 :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

예금주 :

후원계좌

우리은행 064-131858-13-108

국민은행 347-25-0007-108

서울은행 29501-0767520

} 예금주 (사)한국여성단체연합

※ '자동이체 출금동의서'는 금융결제원이 은행과 여성연합의 협조로 후원회원의 계좌에서 약정하신 후원금만큼 자동인출하여 여성연합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후원회원님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으셔도 위 방식을 작성하여 여성연합으로 보내주시기만 하면 후원금 자동이체 납부신청이 됩니다. 여성연합 후원금 자동이체일은 매달 26일입니다.

(단,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의 계좌는 금융결제원의 사정으로 출금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02년 여성연합 주요활동

보육의 공공성 확대 요구활동

- ❖ 2001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이다, 2007년에는 55%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이 결혼, 출산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려면 보육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0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통해 보육시설을 늘리는데 기여했다. 이제는 부모의 수요에 맞추는 질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영아전담보육, 연장보육, 장애아보육, 시간제보육, 방과후보육 등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정부의 보육재정 부담율을 현재, 28%에서 40%까지 확대해야 한다.

가부장적인 호주제도 폐지

- ❖ 호주제도는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전근대적이고 반역사적인 제도이다. 성차별적인 호주승계제도, 부가입적제도, 부성강제조항은 헌법의 남녀평등정신에 위배된다. 재혼 가정의 경우 친부가 양육권, 친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라는 이유로 자녀의 호적을 양부에게 옮길 수 없어 많은 비극을 낳고 있다. 또한 가족의 대를 남자가 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고 태아성감별에 의한 여아낙태로 이어져 심각한 성비파괴현상을 낳고 있다. 호주제도로 피해받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은연중에 성차별을 조장하므로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적제도를 성평등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 ❖ 군산에서 두 번의 화재가 있었다. 유혹주점이 밀집되어 있고 성매매업소가 집중되어 있던 대명동과 개북동에서 일어난 화재로 감금생활을 하던 여성들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현장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선불금, 화대착취, 감시, 폭력 등 여성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터널 속에서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다. 성을 사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우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이윤동기를 차단하여 성매매를 부추기는 고리를 끊어내고자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한다.

여성연합에서 하는 일

- 영유아보육법 개정청원
- 보육예산 두배로 올리기 서명운동

여성연합에서 하는 일

- 호주제도 폐지 입법화
- 호주제도 폐지 전국 릴레이 캠페인
- 호주제도 폐지 범국민서명운동
- 교육용 비디오, 노래 등 제작

여성연합에서 하는 일

- 성매매방지법 제정 청원
-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인권캠페인
- 성매매된 여성의 피해보상 청구 소송 지원
- 여론 확산을 위한 공청회, 홍보물 제작 등

● 출연자 소개 ●

- ❖ **개그맨 김미화** : 남편은 하늘, 부인은 땅이라는 의식이 만연했던 10년도 훨씬 전, '순악질여자'로 등장해 남편을 자신의 마음대로 부리며(?) 여성상위를 외치던 그의 출연은 한마디로 '통쾌' 그 자체였다. 이제는 개그계의 대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방향과 조언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 그는 소외된 계층, 낮은 자리에서 대중과 직접 만나 호흡하며 진솔한 얘기를 나누는 곳이면 없는 시간을 쪼개어 가며 바람처럼 달려온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에도 참여한 전력이 있는 '할 말은 하는 여성파워 개그맨'으로, KBS 라디오 '안녕하세요? 황인용, 김미화입니다' 등 출연작품을 열거하기 어려울만큼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 **KBS 아나운서 김홍성** : KBS 아나운서 21기로 95년도에 입사했다. '긴급구조 119', '스포츠 뉴스', '도전 골든벨', '영화 그리고 팝콘' 등을 진행하며 깔끔한 진행과 재치있는 입담으로 자칫 딱딱하고 무거워 보일 수 있는 남성아나운서의 이미지를 벗어버렸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 KBS-2TV를 통해 방송되는 '도전! 지구탐험대'에서 지구촌의 여러 문화탐사사의 여행을 안내하면서, '지구촌은 하나'라는 취지에 맞추어 세계 각국의 문화현장과 숨겨진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다양한 도전과 모험을 해왔다. 출연자들이 극한 상황에서도 기지를 발휘,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과정이 방송되면서 시청자들에게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시청자 층도 어린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 어린이예술단 '아름나라' : 1989년 마산에서 창단해서, 10년의 세월을 넘긴 지금은 마산·창원·남해·광주·진해·김해·내시·부산·인천·대구·경주·사천 등지의 전국 각 지역에 15곳이 넘는 지부와 200여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아름나라'는 "폭넓은 2등층을 만드는 어린이 문화운동"으로서 최고만을 쫓는 대신 음악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어린이들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른들에 의해 길들이지고, 어른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노래를 쫓아 부르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직접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고 이웃과 사회, 자연을 사랑하고 느낀 것을 글로 표현하고 노래 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의 입말이 살아 있고 솔직함이 묻어 있는 일기나 생활글에서 노랫말을 따와 노래로 만들어 부르고 있다.



❖ 라틴재즈살사 빅밴드 '코바나' : 이름에서 연상되듯이 Corea의 Co와 쿠바의 수도 Habana를 딴 합성어로 20여명에 이르는 멤버로 구성된 라틴재즈 빅밴드이다. 1998년 5월 창단되어 2001년 예술의전당 야외극장 공연을 비롯, 국내외 각종 페스티벌과 행사에 초대되어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라틴재즈에서부터 보사노바, 맘보, 차차차, 메렐레 등 다양한 라틴음악과 살사 댄스가 더해진 코바나의 공연은 연주와 재치이 결합된 형식을 띠어 공연 도중 흥에 겨운 관객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나와 라틴재즈를 함께 즐긴다. 공연의 재미만큼 대단히 자유롭고 열정적이다. 우리가 지금껏 접하지 못했던 라틴음악의 세계로의 초대, '코바나'가 안내한다.



◉ 즉석 경매 '나의 진품 스토리' ◉

즐거운 기부잔치인 '나눔의 또락잔치'에서는 참여적 기금조성이벤트인 '경매 코너'를 마련하였습니다. 언제나 여성연합에 대한 애정과 지원을 감이지 않으시는 몇분께서 기꺼이 경매품을 내어주셨습니다. 경매로 조성된 금액은 전액 여성연합에 기부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매품 1 - 주철환(이화여대 교수, 前 MBC PD) 【JAZZ MASTERS CD 5장】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싱그러우며
바람은 기운을 내게 하고
눈은 우리를 명랑하게 한다.
나쁜 날씨는 없다
단지 좋은 날씨만 여럿 있을 뿐이다.

러스킨의 시(詩)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이렇게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발라드는 달콤하고
포크는 싱그러우며
로큰롤은 기운을 내게 하고
재즈는 우리를 명랑하게 한다.
나쁜 음악은 없다.
단지 좋은 음악만 여럿 있을 뿐이다.

음악은 제게 평생의 친구입니다. 지금 삶이 고단한 분에게 제가 듣던 음악 몇 곡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재즈는 자유혼이 느껴지는 장르입니다. 지금 무언가에 막마르다면 지금 무언가에 갇혀 있다면 이 음악의 세계로 곧장 탈출하십시오. 재즈의 샘물이 당신을 자유롭게 적셔줄 것입니다.



경매품 2 -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가방 3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방의 의미와 좀 다르게 나에게 '가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꼭 필요한 물건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채취가 묻어있는 나의 물건들과 그 물건들속에 소중한 추억도 함께 묻어나기 때문이다. 늘 바쁜 나의 일상과 함께 하면서 가끔은 가방도 쉬고 싶은 때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여성연합 후원행사에 나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가방 몇 점을 기부한다. 두 점은 직접 이것저것 골라가며 산 것이고, 한점은 오랜 제자에게서 받은 선물이다. 제자의 선물이 여성운동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면 그 제자도 아주 기뻐 할 것이다.

이 가방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즐거움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가방들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 아주 소중하게 그리고 즐겁게 사용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여성연합 창립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경매품 3 -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지도위원
【북한 공훈 작가의 금강산 그림 등 2점】

2000년 여성연합 상임대표 재직시절, 북한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위해 평양에 다녀온 적이 있다. 태어나 처음으로 삼팔선을 넘어 평양 땅을 밟는다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특별하겠지만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 오면서 북한의 여성들과 만났던 그때의 기억들은 내 인생에서 오래동안 남아있을 하나의 사건일 것이다. 내가 기증하는 이 그림은 북한의 아이들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공훈화가가 그린 작품이다. 만수대를 방문했을 때 구입한 이 작품은 금강산의 한 계곡을 화폭으로 옮긴 것이라 한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하나쯤 소장하고 있는 것만으로 큰 가치를 할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경매품 4 -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가을에 맞는 멋진 실크 스카프】

여성연합 사무실에서 나는 멋쟁이로 통한다. 오늘 그 “멋쟁이”로 취급(?)받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기로 하겠다. 혹자는 가을이 남성의 계절이라고 하나 나는 여성의 계절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바로 스카프가 있기 때문이다. 스카프 하나로 멋진 자기만의 연출! 내가 기증하는 이 스카프로 여러분들도 “멋쟁이” 소리 듣기를 희망한다.



경매품 5 -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철수 판화 1점】

‘이철수’의 판화를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일 것이다. 복잡하고 바빠 돌아가기만 하는 세상속에 있는 그의 작품은 여유와 느림과 생명이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동을 글로 표현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꼭 찬 그림보다 여백이 있어 편안한 이 작품에서 모든 분들이 삶의 여유를 찾기를 기대한다.



경매품 6 - 이오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북한자수 1점】

이 작품은 단체 재정마련을 위한 바자회에서 구입한 북한자수이다. 북한에서는 북한자수가 고가의 수출품목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만큼 작품의 완성도가 높다는 얘기다. 언뜻 보면 사진인지 자수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 북한자수는 여름이면 더욱 시원할 금강산의 한 계곡을 연상한다. 올 여름 바쁜 이유로 휴가를 가지 못한 분들께 권하고 싶다.



경매품 7 -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철수 판화 1점】

2000년 총선연대 열기가 고조될 무렵,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을 하였지만, 총선연대 사무국은 재정이 파탄났다. 결국 이철수씨 판화를 얻어 팔기로 하였다. 지은희 前 여성연합 상임대표에게 어느날 호출되어, 저녁을 뜯기고 50만원에 그림을 강매당하였다. 총선연대의 역사, 한국 현대사의 한 자락 추억이 담긴 그림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고
개인의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

남녀가 평등하게 공존하고
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대결과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지난 15년을 달려왔습니다.

휴휴~

잠시 쉬면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을 내다보며
더 큰 걸음을 걸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성운동가들의 헌신과 열정,
선배들의 고귀한 정신이 있기에
우리가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평등, 평화, 공존의 세기를 향한 그 길에
여성연합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여성연합 15년사” ◉



1987년

[1987년] 한국여성단체연합 창립

87년 2월 18일, 여성연합은 사회민주
회, 여성노동자 생존권 보장,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기 위해 21개
여성단체의 상호 공동투쟁조직으로 발
족되었다.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성추행
사건(84), 여성노동자생존권대책위원
회 활동(85), 부천경찰서 성고문 대책
위원회 활동(86) 등 그동안 진행했던
사안별 투쟁체를 하나의 연대체로 개
편한다는 의미에서 총회의 명칭을 개
편총회로 했고, 회장으로는 새 이우정
선생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지금까지
한국여성운동사에서 두말한 역할을 수
행했던 여성연합의 창립은 이렇게 소
박한 모습으로 시작됐다.



1988년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87년 제정된 고용법은 2001년까지 4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89년 1차 개
정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 삽입, 95
년 2차 개정에서 모집 채용시 신체조
건 구비 및 미혼자 제한 금지, 남성근
로자까지 육아휴직 신청대상자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99년 3차 개정에서
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정과 간접
차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2001년에 육아휴직 등 4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1989년] 가족법 개정운동

여성연합은 89년 10월 가족법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가족법 개정운동에 나섰다. 같은해 12월 호주상속을 호주승계로 변경, 친족의 범위 조청,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3차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1990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

맞벌이 부부가 일하러 나간 사이 해영·용철 남매가 화재로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90년 2월 여성연합은 탁아문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탁아입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해 10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98년부터는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차등보육료제 도입,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1년] 일본군 '위안부' 사죄
배상 요구활동**

90년 11월, 3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발족했다. 여성연합은 한국교회여성단체연합 등과 함께 정대협 발족을 추동했고, 91년에는 정신대 고발 신고전화 개설, 일본정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등 적극적 활동을 벌였다. 위안부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까지 공론화되고 국제법정에서 일본의 유죄판결을 얻어내는 등 성과를 거뒀으나, 2002년 현재까지 일본정부는 공식사죄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1992년] 남북여성교류

91년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 감격스런 남북여성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네 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 동경을 오가며 '아세아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여성연합은 청림이념인 통일·평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왔고 97년과 2001년에는 전국적 모금을 통해 북한 여성과 아동들에게 분유, 내복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92년에서 93년까지 의붓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김부남씨 사건을 계기로 이 문제를 다루던 화합단체가 주축이 되어 성폭력특별법 제정추진 특위를 구성, 성폭력추방운동을 중점사업으로 전개했다. 93년 성폭력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그릇된 시각이 변화되었고, 2001년 현재 전국 80여개의 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되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대책활동

93년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을 소송으로 제기하여,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임을 밝혀냈다. 여성연합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통해 4년 반이라는 오랜 투쟁속에서 98년 2월 값진 승소판결을 얻어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전 사회적으로 불러 일으켰다.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5년] 지방자치 특위구성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진출 지원

94년 당시 기초의회 여성의원은 0.9%에 불과했다. 여성연합은 지방의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여론화 활동, 지방의회 여성참여 후원회 구성, 여성후보 발굴활동, 여성후보 선거실천훈련 등 1년간의 준비활동을 거쳐 95년 6월 27일 17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하여 14명이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여성연합은 정당법에 비례대표 30% 여성할당 명시 등 여성의 정치적 주류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96년] MBC-TV 미인대회 중계중지 촉구활동

여성민주회와 함께 여성의 성상문화를 조정하는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중계방송 반대운동을 전개해, 2001년을 마지막으로 지상파 TV 중계방송이 중단되었다. 여성연합은 미디어가 대중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99년 미디어센터를 발족하고 '명동방송 다들들·걸릴들'을 선정해왔으며, 여성연예인의 인권을 침해한 SBS '한밤의 TV연예'를 고발하여 방송횟수를 줄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

96년, 10여년간 아내구타에 대한 상달을 해온 여성의 진화를 주축으로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 특위'를 구성하여, 전국적인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법률안을 직접 만들어 국회에 청원했다. 97년 11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2001년 현재 170여개의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에서 오랜 세월 폭력에 방치했던 여성,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1998년] 실직여성가장돕기 사업

98년 IMF 경제위기 하에서 여성우선해고와 실업이 증가했다. 여성연합은 '희망' 캠페인과 '겨울나기 사업'을 통해 실직여성가장들에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쌀과 석유를 지원했다. 여성연합은 그 외에도 세계화 이후 심화된 여성의 빈곤화를 막기 위해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해고 1순위로 내몰리는 여성들과,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형태의 여성노동자 보호활동, 최저임금 인상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다.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1999년] 군복무 가산점제도 반대운동 및 위헌판결

모집·채용·승진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등 군미필자에 대해 3종의 차별을 가하는 군가산점제 폐지를 위해 토론회, 캠페인, 가두서명, 위헌소송을 지원했다. 99년 12월에 헌법재판소가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일단락되었고, 여성·시민단체들은 군미필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합리적 보상대책수립을 촉구했다.

[2000년] 호주제 폐지 운동

우리 사회 가부장성과 권위주의의 뿌리인 호주제 폐지운동은 97년 부모성함깨쓰기 선언을 시작으로 99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 9월에는 113개 여성·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호주제 폐지 청원과 위헌소송을 진행했고, 2001년 4월 가정법원에서 위헌심판제청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운동
여성연합은 여성노동자협회의화, 여성
민우회, 양대 노총 등과 함께 2001년
상반기를 출산휴가 90일 확대, 유급육
아휴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모성보
호관련법 개정운동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7월에 모성보호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감으로
써, 맞벌이 부부의 최대 고민인 육아문
제 해결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2002년] 올해로 18회를 맞은 한국여성
대회 첫 거라축제 개최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매
년 열리는 한국여성대회는 1984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 18회를 맞이했
다. 여성대회는 전국의 회원단체와 다
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어울려 교류하
는 연대활동의 장이 되고 있으며, 올
해는 대학로를 자없는 거리로 만들어
시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어울리는 첫
거라축제를 벌였다

[2002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

2000년 9월과 2002년 1월, 군산 해매춘지
역에서 회재가 발생해 강간 상태로 매춘을
강요당했던 여성들이 숨을 거두었다. 여성
연합은 군산여성연회, 전북여성연합, 서울
터 등과 함께 대책활동을 벌여 사건지대에
있었던 매춘여성의 인권문제를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방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실의조
배외, 문화재단인 각종 한민도문화 등 활
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0년



2001년



2001년



2002년



2002년

[2000년] 2000 총선시민연대,
적극 참여

2000년 16대 총선을 맞아 970여개
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총선시
민연대를 결성했다. 여성연합과 회원
단체들은 반인권, 반여성적인 정치인
에 대한 낙선·낙선운동을 적극 전
개함으로써, 정치개혁활동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켰다.

[2001년] 여성연합 후원회 발족

여성연합은 지난 14년간 받아온 독
일 EZE 재단의 운영비 지원이 한국
의 OECD가입으로 인해 중단됨으로
써,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6월 후원회(공동대표 이이
효재 패티김 이세중)를 결성했다.
2001년에는 8개 지역에서 패티김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를 개최했
고, 2002년부터는 평등실천 남성
100인위원회 모집, 평생후원회원 및 1
만원 후원회원 모집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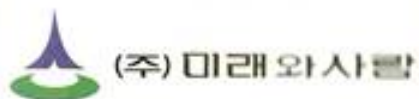
후원에 주셨습니다



KB 국민은행



KTF



Coréana
코리애나 화장품



서울아산병원
Asan Medical Center



고객과 함께, LG와 함께
www.LG.com

디지털 네트워크는 디지털 LG



아마 물레 싹이 자란이 옷을 찾아주시는 이해
회사에 계신 이해의 노력과 우리집 디오스 냉장고
프롬 세라기가 네트워크를 연결합니다



이제, LG전자의 모든 제품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더 큰 세상 속에 들어왔습니다. 마음껏 네트워킹 하세요. 즐거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함께, 더 즐거운 네트워크 세상-디지털LG



PDP-TV



휴대용 TV



LCD-TV



디지털 스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카메라

LG전자

디지털 LG

따뜻함이 있는 곳....



푸드빌 주식회사

숲이 있는 도시는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도시를 숨쉬게 하고, 그 속에 사는 이들을 풍요롭게 하는 숲 - 도시숲은 다음 세대와의 약속입니다.



뉴욕 맨해튼 섬 한가운데에는 100만 평이 넘는 대규모 가족 공원인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마천루에 둘러싸인 센트럴 파크에는 10만여 명이 권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그대도 살기 건강하고 우람한 숲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캐나다의 밴쿠버에도 호수와 조원, 수백년 된 원시림이 남아있는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30여 종이 넘는 새들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동식물들, 그 속에 한데 어우러져 여유롭고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자체가 강동으로 다가올수록 인간의 삶에 이로운 도시로 모여 사는 우리 나라 - 하지만 우리 도시의 숲은 선진국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도시 곳곳에 숲을 키우고 가꾸는 노력은 반드시 지켜줘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